EU,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추가 보복 예고

집행위 "불확실성 초래" 유감
6월 4일 발효시 7월 14일 맞불
캐나다 "노동자 향한 공격" 비판

유럽연합(EU)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보복을 거론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응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면서 "EU는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및 추가적인 EU 조치는 7월 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해 "글로벌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추가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철강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 철강산업협회 회장인 케르스틴 마리아 리펠은 이날 dpa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수입 관세 두 배 인상은 대서양 횡단 무역 갈등의 새로운 고조를 의미한다"며 "50% 관세는 우리 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경제에 추가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우리 철강 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에 따르면 유럽 철강산업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00억 유로(약 120조원)가량을 기여하고 있으며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에 걸쳐 500여개 생산 시설이 가동 중이다. 250만개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럽의 핵심 제조업 중 하나다.

전체 철강·알루미늄 생산량의 20%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대미 수출국이다.

EU는 지난 3월 미국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수입량 제한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엔 미국 철강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총 210억 유로(약 33조원) 상당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7월 14일까지 90일간 보류했다.

지난 9일에는 협상 불발에 대비해 미국의 10% 보편관세,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등 최대 950억 유로(약 150조원) 상당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세부 목록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EU뿐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도 강하게 반발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관세 인상이 북미 경제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서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폭우로 침수된 인도 거리 31일 인도 아삼주 구와하티에서 폭우로 침수된 거리를 시민들이 릭샤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하룻동안 22명이 사망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러 공세 강화' 우크라, 마을 11곳 대피 명령

러 "수미주 보돌라이 마을 점령"

우크라이나 당국이 동북부 러시아 접경 수미주의 11개 마을에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미주 당국은 "이 결정은 국경 지역 마을 민간인의 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미주 관내에서 지금까지 대피 명령이 내려진 마을은 총 213곳이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올레흐 흐리호로프 우크라이나 수미 주지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노웬케, 바시우카, 웨셀리우카, 주라우카 등 4개 마을이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까지 수미주 일대에서 총 6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추가로 보돌라이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동부 도네츠크의 노보필 마을도 장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수미주에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2기를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대를 탈환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을 잇달아 점령하며 '완충지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러시아가 수미주 근처에 5만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 회의에서 "국경을 따라 필요한 보안 완충지대를 조성할 결정이 내려졌다"며 "우리 군이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마스 "미 휴전안에 답변…인질 10명·시신 18구 송환"

트럼프 "가자지구 합의 근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31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자들에게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며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의 대가로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하마스는 앞선 지난 29일 미국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의 휴전안에 대해 자신들 요구에 미달한다고 지적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 휴전안을 승인했으나 하마스 측은 전날에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하마스가 위트코프 특사의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앞서 위트코프는 인질 10명 석방을 조건으로 60일간 가자지구에서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전안에 따르면 휴전 첫 주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풀어주면 된다. 이 중 절반은 휴전 첫날, 나머지 절반은 휴전 7일째에 석방된다. 또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낸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위트코프 특사 제안에는 60일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이 최근 장악한 가자지구 지역에서 철수하고, 인도주의적 구호품 분배 업무를 유엔 기구가 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확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시적인 휴전만 가능하다는 이스라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그동안 영구 교전 중단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지난 달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이 이뤄진 칸유니스 유럽병원 현장. 연합뉴스

이, 하마스 수장 사망 공식확인

"땅굴에 30초간 미사일 50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수장인 무함마드 신와르가 지난 달 중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과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3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지난 13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유럽병원 공습으로 신와르와 하마스 라파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샤바나, 남부 칸유니스 대대 사령관 마흐디 쿠라 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IDF와 신베트는 "이 테러리스트들은 칸유니스 유럽병원과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을 고의로 위험에 노출한 채로 병원 아래 지하의 지휘통제 센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앞서 지난 달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신와르의 사망을 의회에서 보고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무함마드 신와르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기획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으로, 지난해 10월 형이 이스라엘군에 살해되자 가자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았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달 13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자들을 겨냥해 가자 남부 칸유니스 유럽병원을 공습했지만, 그간 신와르의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작전 후 약 보름 만에 신와르 제거를 공식 확인한 이스라엘군은 이날 구체적인 공격 정황 등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재입국 거부될라"…미 유학생들, 고향 못가

WSJ "대학들, 캠퍼스 주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재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는 대신 미국 내에 머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립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학교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주거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통상 수업을 듣거나 캠퍼스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 시설을 제공해왔지만, 올해 여름에는 모든 외국인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미네소타주의 맥칼레스터 칼리지는 25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활용해 올해 여름 교내 숙소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주거시설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정책으로 새 학기를 앞둔 외국인 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방학 기간 캠퍼스 숙소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텍사스의 베일러대나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대 등 미 전역의 다른 대학들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미국 내에 머물 것을 권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버드대는 최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민 당국 요원이 숙소에 갑자기 찾아올 경우에 대응 요령을 담은 빨간색 카드를 배포했다. 카드에는 학생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 전화번호도 적혀있다.

하버드대는 또한 여름방학 기간 학내 주거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청 마감일을 비공식적으로 연장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다수 대학은 연방정부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보다 그룹채팅방 등을 통해 조용히 전파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거나 재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과거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